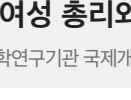


핀란드 FINLAND



핀란드 정부, 역대 최연소 여성 총리와 여성 정당 대표를 활약 두드러져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2020년 11월, 영국 공영방송 BBC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올해의 여성 100인(BBC 100 Women 2020)'을 발표했다. 그중 한 명으로 핀란드의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가 포함되어 있다. 산나 마린 총리는 2015년 의회에 입성한 신예 정치인으로 2019년 12월, 34살의 나이로 총리로 선출되었다. 또한 현재 핀란드 정부는 5개 정당이 연립정부 형태로 출범했는데, 현재 정당 대표들이 모두 여성이다. 본 원고는 핀란드 정부의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과 중점분야 등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핀란드는 이미 1980년부터 양성평등을 위한 정부 행동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행동계획 2020-2023 (Government Action Plans for Gender Equality)을 추진하고 있다. 본 행동계획은 1986년 제정된 남녀평등법(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건부 내에는 양성평등국(Gender Equality Unit)이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의회 내 성평등 위원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 TANE)에서 입법안 제출, 성평등 관련 연구결과 정책 활용방안 모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각종 기관들의 남녀평등법 이행을 감독하고 차별문제를 처리 및 중재하는 역할은 독립된 평등 옴부즈만(Ombudsman for Equality) 및 국가 차별 및 평등 조사위원회(National Discrimination and Equality Tribunal)에서 맡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2020-2023 행동계획은 경제분야 내 근로 및 의사결정직에서의 성평등, 가사 및 양육 동등한 분담, 남녀 평등한 교육, 여성대상 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 성소수자 지위 향상, 성 주류화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핀란드 남녀평등법에서는 모든 정부기관이 사회 전반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사회보건부와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 Finland)은 2020년 직장에서의 성평등 및 동등 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평균 동일직종의 남녀 근로자 임금격차가 약 16% 정도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 정부는 남녀 동일임금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정책 개발 및 추진 이외에도, 산나 마린 총리가 이끄는 현 핀란드 현 정부는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젠더도 소득격차, 이민자 가정 등 다각도에서의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하나의 범분야 이슈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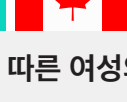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여성 총리와 여성 정당대표들이 이끄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거나, '립스틱 내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배출된 사실 만으로 의사결정직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토마스 블롬퀴스트(Thomas Blomqvist) 노르딕 협력 및 평등 장관(Minister for Nordic Cooperation and Equality)은 한 매체를 통해 "여성 총리와 여성 정당 대표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지만, 오랜 시간 남성이 사회, 경제 등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지위를 누려왔다. 평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갖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핀란드에서 여성 총리, 그리고 여성 정당 대표들이 이끄는 핀란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현 정부가 핀란드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성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 BBC(2020.11.24), "Sanna Marin: The feminist PM leading a coalition of women", <https://www.bbc.com/news/stories-55020994> (접속일: 2020.12.08.)
- Finnish Government(2020), "Inclusive and competent Finland - a socially, economicall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https://valtioneuvosto.fi/en/marin/government-programme> (접속일: 2020.12.08.)
- 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20.11.03.), "Minister Blomqvist: Gender equality planning at workplaces must be enhanced", <https://stm.fi/en/-/minister-blomqvist-gender-equality-planning-at-workplaces-must-be-enhanced> (접속일: 2020.12.08.)
- 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2020), "Gender equality policy", <https://thl.fi/en/web/gender-equality/promoting-gender-equality/genderequality-policy> (접속일: 2020.12.08.)
- Nordic Labour Journal(2020.03.06), "Lipsticks or bulls? Finland has changed after women came to power", <http://www.nordiclabourjournal.org/f-fokus/in-focus-2020/theme-genderequality-in-the-nordics/article-2020-03-06.3373215147> (접속일: 2020.12.08.)

캐나다 CANADA



캐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 높아

김영 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2차 확산과 장기화의 여파가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특히 가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4일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15세~24세 청년층 실업률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가운데, 특히 여성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11월, 15세에서 24세 사이 연령대에서 10월 대비 0.9% 고용률의 증가가 있었다. 같은 연령대 실업률 또한 1.4%p 하락하여 17.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표면적으로 이 연령대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소폭이나마 회복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으나, 통계청은 이러한 회복세를 남성들의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이 연령대의 남성 고용이 대폭 증가한 반면 여성들의 고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말, 캐나다 사회가 대대적인 섯다운에 들어간 이후 사회 초년생인 이 연령대의 타격이 컸으나, 하반기 들어 건설 현장 등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이 서서히 활기를 되찾으면서 남성들의 실업률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11월 건설직의 고용율은 7월 이후 최초로 증가세를 보여 26,000건의 고용을 창출했다. 운수업과 창고업도 11월 2.1%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령대 여성의 취업률은 올해 2월에 비교해 11% 낮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고 남성들의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11월에 들어서도 큰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확연한 경제활동 회복에서의 성별 격차는 캐나다의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 계획에 젠더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지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여성에게 기대되는 돌봄의 의무가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적 선택지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고 이는 특히 젊은 여성, 비 백인,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관광, 레저, 서비스업은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주된 경로인데 이들 산업이 장기적으로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게 됨에 따라 사회 초년생 여성들의 실업 또한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9월까지의 진정세였던 코로나 사태가 10월부터 2차 확산 사태에 들어섬에 따라 온타리오 곳곳에서는 다시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매장 내 취식을 금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소매업, 문화, 레크레이션, 숙박, 요식업 산업에는 2019년 기준 청년 고용의 25.4%가 집중되어 있는데, 통계청은 이번 2차 위기의 파장이 3월 1차 위기에 맞먹는 강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캐나다 주정부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11월 온타리오주에서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일각에서는 현 온타리오 정부의 경제 회복 계획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을 감소에만 치중해 나머지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되어 있고 어떻게 교육과 돌봄에 투자하여 여성들을 일터로 돌아오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 경제 위기의 젠더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쉬세션(she-ce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실제로 핵심 경제활동 연령대인 25세에서 54세 사이 여성의 고용율은 지난 6개월 동안 변함이 없었는데, 예컨대 11월만 해도 정규직 고용에 소폭 상승(+1.0%)이 있더라도 여성들에게 집중된 파트타임직에서의 상실률(-5.0%)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핵심 경제활동 연령대 여성들의 경우 9월에 경제활동 참여율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 근처로 회복한 이후 11월까지(83.8%) 꾸준히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15세에서 24세의 여성들의 경우 3월 이후 장기적인 고실업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회 초년생 여성들이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정폭력의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화두인 만큼 성별, 그리고 연령별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참고자료

- Toronto Star(2020.12.07), "Jobs remain elusive for young women amid COVID-19 second wave", <https://www.thestar.com/news/canada/2020/12/07/jobs-remain-elusive-for-young-women-amid-covid-19-second-wave.html> (접속일: 2020.12.10)
- Statistic Canada(2020.12.04), "Labour force survey November",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201204/dq201204a-eng.htm> (접속일: 2020.12.10)

국제언론인센터 ICJ 유네스코 UNESCO



국제언론인센터(ICJ)·유네스코(UNESCO), 여성 언론인 대상 온라인 폭력 심화에 대해 성인지적 대응정책 요구

채혜 원 독일통신원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온라인 폭력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오프라인 폭력으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언론인센터(International Center of Journalists, 이하 ICJ)와 유네스코(UNESCO)가 지난 11월 25일 세계 여성 폭력 철폐의 날을 맞아 실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75%의 여성 언론인이 온라인 학대나 괴롭힘, 위협 또는 공격을 경험한 적 있고, 여성 언론인 및 미디어 분야 종사자의 20%는 오프라인 학대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공격이 이미 자신이 경험한 온라인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국제언론인센터(ICJ)와 유네스코(UNESCO)가 진행 중인 연구의 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5개 언어(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에는 전 세계 1,210명의 여성 저널리스트 및 미디어 종사자가 참여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중순부터 7주간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전문 저널리즘 네트워크와 미디어 개발 조직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여기에는 국제언론인센터(ICJ) 및 유네스코(UNESCO) 프로그램 참가자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여성 언론인 중 20%는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온라인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짐작되는 오프라인 학대와 공격을 경험했다. 이들에 대한 온라인 폭력이 디지털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 예로 2017년에 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지금까지 살해된 언론인 중 약 40%가 살해되기 전에 온라인을 포함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에 강력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해에는 인도와 몰타에서 저명한 두 여성 언론인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젠더 온라인 공격의 표적이 된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가 처음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2014년, 유네스코가 지원한 한 연구에서 약 1,000명의 여성 기자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가 업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위협, 협박 또는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여성미디어재단(IWMF)과 트롤버스터(Trollbusters)가 2018년에 이어 진행한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63%가 온라인에서 적어도 한 번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학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 저널리스트가 경험하는 온라인 폭력 비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보아 연구진은 여성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젠더 폭력이 지난 10년 동안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줄리 포세티 박사는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기고문을 통해 "온라인 폭력은 저널리즘 안전의 새로운 최전선이며 특히 여성에게 위험하다. 여성 저널리스트는 일상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괴롭힘과 폭행 및 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혐오 표현과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공격은 여성 저널리스트가 일하는 매체나 독자, 사적으로는 가족으로부터 확대되며 저널리스트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를 끼치는 위협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소셜미디어 위험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신체 폭력이 증가했듯이,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온라인 폭력 역시 증가했다. 국제언론인센터(ICJ)와 컬럼비아대학이 올해 초 실시한 다른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응답자의 16%가 온라인 학대와 괴롭힘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상황의 주된 이유로 첫째, 대개 포털리스트나 보수적인 정치인에 의해 촉진된 언론에 대한 적대감과,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취재가 어려워지면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취재에 의존하게 된 상황 등을 꼽았다.

문제는 이처럼 온라인 폭력이 심각해졌지만 이에 대해 대항하며 발언하는 여성 기자들은 더 큰 표적이 되거나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부 여성 저널리스트는 온라인 폭력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일선 보도 현장에서 철수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공개되어 온라인 채널에서 탈퇴하고 있었다.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여학생들은 부정적인 온라인 경험이나 작업 과정에서 온라인 폭력에 노출될 위험으로 인해 경력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줄리 포세티 박사를 비롯해 재키 해리스 교수, 실비오 와이즈보드 교수 등 연구진은 뉴스 조직이 성인지적인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실제 폭력은 온라인 위협이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니, 온라인 폭력을 경험한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해 신체적 안전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심리 지원,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포함한 디지털 보안 강화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진은 필요한 경우, 법적 지원을 통해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은 ▲언론 자유 보호와 언론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 인권 프레임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강력한 소셜미디어 회사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거짓 정보와 증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 ▲디지털 플랫폼이 스스로 뉴스 발행인으로서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이용자로부터 사설 확인 및 증오 표현에 관한 규제 기준 마련 ▲디지털 회사, 뉴스룸, 시민사회 조직, 연구기관, 정부, 사법 영역에 걸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DW(2020.11.25), "New Research: Online attacks on women journalists lead to 'real world' violence", <https://www.dw.com/en/new-research-online-attacks-on-women-journalists-lead-to-real-world-violence/a-55712872> (접속일: 2020.12.14.)